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10년 기준 2,100억불 이상으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넘어 서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통해 2015년도에 주력 수출 산업(500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해외진출지원방안

한 윤 철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팀장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에너지관리공단 기술지도실, 신재생에너지개발실, 해외사업실 등 근무
tel. 031-260-4656 | ychan@kemco.or.kr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근거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여 왔다. 특히 2008년 수립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보급율을 11%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보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 하였는데, 제조업분야에 대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6개부문의 산업현황을 2010년말 기준 으로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제조업체수가 '04년 49개사에서 '10년 212개사로 약 4.3배 성장하였다.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순으로 이중 약 70%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고용인원면에서는 연 평균 64% 증가하여 '04년 716명에서 '10년 13,651명 으로 나타나 '04년 대비 19배가 성장하였다. 특히 태양광, 풍력업체들의 고용인원은 11,566명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여 관련 산업 성장이 본격화 되면서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었다. 매출액은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의 참여 확대로 '04년 1,430억에서 '10년 8조 780억으로 '04년 대비 약 57배가 증가하였다.

이 중 태양광, 풍력부문의 매출은 7조여 원으로 신재생에 너지 매출액의 약 87%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수출은 '04년 6천 4백만불에서 '10년 45억 4천만불로 70.9배가 성장하였다. 이중 99.9%가 태양광, 풍력부문으로서 이는 '10년도 총 태양광 매출의 74%, 풍력매출의 78%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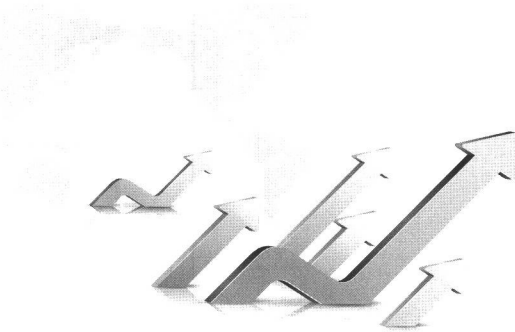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10년 기준 2,100억불 이상 으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 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통해 2015년도에 주력 수출 산업(500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지식

경제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신재생에너지협회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 하는데 필요한 해외시장 기초 조사부터 수출제품의 인증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즉,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전주기적 수출 지원을 위하여

❶ 해외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❷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 ❹ 해외시장개척 지원, ❺ 국제전시회 개최를 지원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❻ 신재생 에너지전문가 해외연수 교육 지원, ❼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등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사업은 해외진출 유망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조사를 통한 잠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즉 기업이 자유롭게 국가와 신재생에너지원을 선정하고 발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당국의 정책, 시장규모, 환경조건 등의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 대기업의 경우 50%이내에서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 조사사업은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가 예상되는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초기 개발리스크를 줄이고자 타당성조사(F/S : Feasibility Study)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으로는 국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국내업체가 공개 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등에 타당성 조사비를 지원한다.

해외 설비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 기업의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해외 인증마크(UL, T·V 등)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금년도에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인증취득 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비율을 구분하여 건당 1억 원 이내로 한 기업체에 2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제품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코트라, 태양광산업협회 및 풍력산업협회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해외 주요 수출대상국의 해외바이어 초청,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의 전문가 해외연수 및 교육지원사업은 수출유망국의 정책, 기술을 습득하고 해외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항공료, 체재비,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부문은 미국의 일리노이주립대 및 네덜란드의 ECN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월에 국내에서 국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및 우수 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해외선진국과의 기술을 교류하며,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지원센터는 해외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자문,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지원협회를 운영하여 해외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진출 동기 부여와 함께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기술, 제품, 프로젝트가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